

# '22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3.16	서면회의	5/15	-	-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유선·김형순·정은진·최정욱·한문철

② 방송사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
- 경영진 외 : -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8	1	0	0	9	0	0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0	0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	--------------	------	-----

<p>보도</p>	<p>불합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바라봐주길 바람</p>	<p>-&lt;본방을 보자&gt; ‘오늘도 출근’ 편 (4.13, 20)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 씨, 1급 장애인 기자 이영광 씨 편 등 방송 조치</p>	<p>'22.3.</p>
<p>"</p>	<p>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타당한 주제를 다뤄주길 바람</p>	<p>-&lt;시사ON&gt;, 6.1지방선거 레이스 시동(4.1), &lt;뉴스데스크&gt;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난항(4.4), 지방선거 경선 일정 윤곽..후보들 초긴장(4.8), 6.1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4.11~) 등 방송 조치</p>	<p>"</p>
<p>"</p>	<p>한전공대,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길 바람</p>	<p>-&lt;뉴스데스크&gt; 미완의 국책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3.23) 등 방송 조치</p>	<p>"</p>
<p>"</p>	<p>지방선거 공약 검토 및 정책 제안 분석, 광주 장기계획 방향 등 관심 바람</p>	<p>-&lt;뉴스데스크&gt; 지방선거 열기 고조..‘관심 포인트는?’(3.24), 정치 개혁 가능할까..“소수정당 목소리 반영돼야” (3.24), ‘무등산 개발’..광주시장 선거 쟁점으로(4.5), 본격적인 정책 대결..내가 책임자(4.7), &lt;시사ON&gt;, 6.1지방선거 레이스 시동(4.1), 강기정 예비후보 편(4.8) 등 방송 조치</p>	<p>"</p>
<p>"</p>	<p>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지속적인 후속 보도 바람</p>	<p>-&lt;뉴스데스크&gt; ‘학동 붕괴’ 영업정지 8개월..현산 맞대응(3.30), ‘화정아이파크 붕괴’ 감리 3명 송치..과실책임자 15명 송치 마무리(4.1), 학동 붕괴 참사 뒷돈 챙긴 전 임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4.7),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도급 업체 영업정지 4개월(4.9), &lt;시사 인터뷰 오늘&gt;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총체적 관리 부실” 현산, 행정 처분은?(3.17) 등 방송 조치</p>	<p>"</p>
<p>"</p>	<p>&lt;시사 ON&gt;,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도 좋겠음</p>	<p>-&lt;시사 인터뷰 오늘&gt;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에 나서(3.31), &lt;본방을 보자&gt; 뉴스 본방 코너 등 방송 조치</p>	<p>"</p>
<p>"</p>	<p>&lt;시사 ON&gt;, 인터뷰 ON과 이슈 ON</p>	<p>-보도 책임자, 담당 PD 의견 전달</p>	<p>"</p>

	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주제로 진행하면 좋겠음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3.28)	
교양	<광주MBC 보다> 주제 산만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며, <본방을 보자>의 경계가 불분명함	-‘시청자 TV’ 코너,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리 편성 조치(4월 개편 시)	”
	총 건수	8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처리 결과 및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바라봐주길 바람(김유선)	대선 사전투표에 맞춰 장애인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투표소 시설을 점검했지만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음. 6.1지방선거 때는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음	○		
"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타당한 주제를 다뤄주길 바람(김형순)	우리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관심과 지지가 쏠려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	한전공대, 세계 최고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길 바람(김형순)	광주MBC 뉴스와 시사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부영에 대한 특혜 의혹을 다뤄왔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는 동시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음	○		
"	지방선거 공약 검토 및 정책 제안 분석, 광주 장기계획 방향 등 관심 바람(정은진)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		
"	광주선 철도 운행 100년 관련 기획 관심 바람(정은진)	광주 철도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획 보도에 관심을 두겠음	○		
"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지속적인 후속 보도 바람(한문철)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과 건물 철거 계획,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구제 등 여러 문제를 놓치지 않고 후속 보도하겠음	○		
"	<시사 ON>,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도 좋겠음(최정욱)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의 인터뷰 등을 방송하기도 했지만, 선거철인 만큼 국내 정치 이슈에 집중한 면이 있음. 우리 지역 시청자가 관심 있는 주제는 다 다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범위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처리 결과 및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넓혀가겠음			
"	<시사 ON>, 인터뷰 ON과 이슈 ON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주제로 진행하면 좋겠음(최정욱)	따뜻하고 밝은 주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겠음	○		
교양	<광주MBC 보다> 주제 산만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며, <본방을 보자>의 경계가 불분명함(최정욱)	<광주MBC 보다>는 지상파 전용 제작물이 아니라 기존 지상파·디지털 제작물의 재제작·재편성 성격이며, <광주MBC 보다>와 <본방을 보자>는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임. '시청자 TV' 코너는 4월 개편부터 따로 분리하여 편성 예정임. <본방을 보자>는 <오매 전라도> 대체 콘텐츠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튜브·네이버·카카오 TV 동시 방송하는 '라이브쇼'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생방송 성격을 더욱 강화했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3월)

\* 서면 제출일 : 2022. 3. 16.(수)

\* 총원 15명 중 5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유선, 김형순, 정은진, 최정욱, 한문철(5명)

\* 2022년 2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 김유선 위원

-<시사 ON> 3월 6일, 13일, 20일 방송

생생한 지역의 이슈를 생방향으로 소통하는 지역 시사 프로그램으로 개편이 되어 금요일 13시 50분에 방송을 하고 일요일 오전 8시에는 재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다양한 패널을 모시고 민주당의 정권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내용으로 3회차 이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야당의 정책과 당선 이후의 과제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어떤 채널에서든 듣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선거를 치르는 곳곳의 투표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곳곳의 사전투표소가 이루어질 곳을 모니터링 다녔었는데, 사전투표일의 현실은 모니터링 때와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1층 공간이 아닌 2층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는 공간이 배치되었고, 경사로의 정도가 원만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나 지원인을 통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준비가 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투표소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에서는 언론 보도나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디. 유권자로서 누려야 하는 선거권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6월에 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언론의 힘과 내용이 현실적으로 다루어지는 줄을 것 같습니다.

-광주MBC 무등산을 사랑하자, 남도사랑 캠페인

코로나 19로 지친 모두에게 봄을 알리는 향긋함이 피로로 지친 일상에 위로를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 □ 김형순 위원

-<시사 ON>, 갈길 먼 민주당 쇄신 가능한가?(3월 20일)

토론은 조선대 지병근 교수, 최영태 교수가 출연하였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광주의 선거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방송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광주가 언제까지 더불

어민주당 특정 당을 지지하는 도시인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당만 꼬집어서 쇠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가 왜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으니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방송 편성에서 선거 이후 광주의 변화 등과 같은 보편타당한 주제로 편성되었으면 한다.

-3월 27일 저녁 본사 스트레이트에서 나주 부영CC 특혜와 관련된 보도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KENTEC(한전에너지공대)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광주, 전남도민의 열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명하고, 정당하게 절차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앞으로 이러한 특혜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고 절대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중요한 이슈이니 앞으로 광주MBC가 지역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 □ 정은진 위원

1. 지방선거 공약 검토 및 정책 제안 분석 + 光州 장기계획 방향 제시

-2022. 2. 8. 광주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자료집, 3.21(월) 출간

-10개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적 고민과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sup>1)</sup>

- 지표와 이행방안 • 학습/인식 • 돌봄/적응 • 농업/먹거리 • 에너지전환
- 건물 • 교통 • 순환 사회 • 전환경제 • 탄소흡수원

- 현재 준비 중인 자료집 압축 본(20쪽 분량)에 6월 지방선거 정책 제안 담을 계획

⇒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실천 활동 소개하면서 광주의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2. 2022년, 광주선 철도 운행 100년 관련 기획

-광주선 • 광주송정역~광주역, 11.9km

- 1922년 개통 이후 100년

-광주선 푸른 길 더하기 시민모임(준),

- 3.18(금), 광주송정역~광주역~산수마당 구간 답사(기차+도보)
- 3.20(일),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자전거 이용 답사

#### □ 최정욱 위원

1. 이번 개편으로 월요일에는 <광주MBC 보다> 화·수·목요일에는 <본방을 보자>를 방송합니다.

1) <광주MBC 보다>와 <본방을 보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a) 시청자 TV

1) 자료집 파일,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2022-03-02 <본방을 보다>와 2022-03-07 <광주MBC 보다> 두 프로그램 모두에서 ‘시청자 TV’가 방송되었는데 한 프로그램에서만 차별성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 트로트 맛집 vs 줌인 노래방

c) 한 평의 삶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vs 특별한 게스트하우스

2) 개편방송의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2022-02-24 <본방을 보자> 목요일마다 줌인 노래방이 있는데 방송사고가 발생했네요. 참가자 한 분이 결국 연결이 안 돼서 첫 방송부터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의 생방송이라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2022-02-23 수요일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22-03-02 수요일방송에서 수요일마다 본술랭가이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 것을 보고 개편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이야깃거리를 확보한 후 개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3) <광주MBC 보다>는 여러 개의 VOD를 연결해서 방송하는데 한가지의 주제가 아니어서 산만해지고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주제에 맞는 VOD를 옴니버스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본방을 보자>에서 수요일마다 방송하는 월간본술랭 가이드(3월 삼겹살)

a) 2022-03-02 대패삼겹살 2곳

삼겹살이 구워지는 장면이 오래 나옵니다. 시청자의 눈과 귀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너무 같은 장면이 내레이션 없이 길게 나오다 보니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b) 2022-03-16 생삼겹살 1곳 & 숙성 삼겹살 1곳

첫 방송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 집중도 있게 보았습니다.

한 달에 수요일이 4~5번이 있는데 삼겹살 하나의 주제로 한 달을 진행할 정도의 다양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 진부할 텐데요.

5) <본방을 보자>에서 다른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음식이나 주전부리 설명이 있는데 요일을 정해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특산물이 있다는 전개가 있었으면 좀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 안동의 피문어 vs 여수 돌문어

b) 부산 갈미조개 vs 여수 새조개

6) <본방을 보자>의 ‘뉴스본방’은 방향성을 찾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꼭 챙겨 봐야 할 오늘의 뉴스에 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좋았습니다.

## 2. <시사ON>

1) 토론ON : 물론 지금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2022-02-25일부터 금요일마다 네 차례 방송했는데 모두 대선과 정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방송 시 다양한 시사 현안을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사 주제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우크라이나 사태 및 경제 위기

b) 우리나라 대선 결과에 따른 다른 나라의 반응

2) 인터뷰 ON과 이슈 ON에서는 좀 더 따뜻하고 밝은 주제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사전달이 전반적으로 딱딱하다 보니 “따뜻할 온”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 □ 한문철 위원

-<뉴스데스크>(2022년 3월 14일) 붕괴 후 두 달 넘었지만.. 사후 처리 제자리걸음

지난 2월 HDC현산과 붕괴사고 피해 유족과 보상 합의는 일단락되었지만, 현산과 예비입주자 간 ‘철거 범위’ 입장 차는 여전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이슈에서 멀어졌다.

추후 진행될 철거, 재시공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입주자와 인근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될지 많은 시청자의 궁금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마침 후속 보도가 나왔다.

3월 14일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사고의 원인이 설계 무단 변경과 콘크리트 불량이며 이에 대한 시공관리, 감시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발표된 직후라 다소 아쉽기도 하다.

리포트에서 201동의 무너진 층의 철거작업이 7월쯤 예상되지만, 이후 어떤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전체적인 부실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 입주를 꺼리는 입주예정자, 공사를 진행하던 철거를 하던 경제적 피해가 볼 보듯 뻔한 인근 상인, 화정동 공사 현장 일대를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 등 광주시민 전체가 피해자일 수 있다.

인터뷰에서 입주 예정자, 상인의 입장은 있었지만, 시민의 인터뷰가 없었던 게 다소 아쉬웠지만, 현장에서 스케치와 함께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준 점이 좋았다.

지속적인 후속 보도로 현산측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빠른 결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기”의 역할을 광주MBC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